

“한국문화·불교 세계화 시의적절”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 10박11일 訪美 일정 LA서 시작

해외특별교구 설립관련 의견 청취

교민 불자 격려 등 분주히 움직여

취임 후 첫 미국 순방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대표단’이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대표단(공동 단장 혜경·토진스님)은 지난 14일 오후 2시52분(LA 현지시각·이하 같음) 서울발 대한항공 011편을 통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김재수 LA 총영사를 비롯해 현일(남가주불교사 원연합회 고문)·만성(남가주불교사 원연합회장)·현철(미서부승가회장)·도현(LA 관음사 주지)·범경(남가주승가회장)스님 등 30여 명이 영접을 나왔다.

대표단은 도착 당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교민 불자를 격려하고,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반야사, 고려사, 선각사 등을 참배하면서 미국 내 한국 불교계 상황을 직접 살피고 불자들을 격려했다. 다만 불광산사에서 대규모 도량으로 건립한 서래사도 참배했으며, 동국대 LA캠퍼스 시설을 돌아본 후 교직원·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밤미 이틀째인 15일 LA 관음사에서 봉행된 총무원장 스님 초청 대법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고통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극락”이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극락임을 잊지 말고,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교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에 앞서 고려사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곳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가 되는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에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사찰 음식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반기문 총장과는 세계평화와 남북긴장완화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리나 보코바 총장과는 위기국가 및 저개발국 어린이 교육사업 지원 방안을 협의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동국대 LA캠퍼스를 방문, 김인식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의하며, 조계종과 유네스코의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40만 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다. 귀국은 9월24일이다.

조계종 대표단의 미국 방문에 대

해 김재수 LA총영사는 “한국불교 및 문화의 세계화와 종교간 화합교류, 세계평화를 위한 UN과의 협력 추진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하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종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풍성한 성과와 거두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미국 LA=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원희룡 “4대강, 공동 여론조사 의향 있다”

화쟁위 토론회서 여당차원 첫 표명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가능성 주목

한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한으로 치닫는 4대강 사업이 처음으로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조계종화쟁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적 논의의 기구에 참석해서 공사 중단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을 놓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동 여론조사도 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이래 여당 차원에서 공론의 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당의 변화가 주목된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 당에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 사무총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야당대표로 참석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도 처음에 공사 중단 전제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공사 중단 여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반면 정부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공사 중단이 전

제된 국민적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 서두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제시했던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 역시 “공사 중단이 전제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논의의 기구 구성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4대강 공사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논의의 장인 국민적 기구 구성이었다. 화쟁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정부는 “공사 중단을 전제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과거 경험에 비춰 사회혼란만 더 가

중되고 분열이 가중되었다는 등의 실효성을 들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여야 사무총장이 공사중단 여부까지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경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며칠씩 끝장 토론을 펼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 다음 공동여론 조사를 거쳐자는 새로운 안에 원희룡 사무총장이 동의하면서 국민적 논의기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해결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끝장 토론을 통한 공동 여론 조사 등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44개 교과 강의계획서 만든다

교육원, 한문불전 등 5차례 교수 연찬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승가대학 교과목별 강의계획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위해 5회 걸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가대학 교과목 교수 연찬회를 개최한다.

향후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지도할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한문불전’ 분야에 대한 연찬회를 시작으로 30일 ‘대승불교’, 10월5일 ‘선불교’, 10월7일 ‘초기불교’, 10월21일 ‘계율과 불교윤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연찬회에 앞서 교육원은 총 8개 분야 44개 과목에 대해 해당 교

과목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재, 평가 및 강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강의계획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연찬회에서 강의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강의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과목 간의 교육내용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강의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별 교과목과 더불어 기본교육 전체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포교대상’ 후보 공모
포교원 10월8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이 제22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 추천분야는 계종포교(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직능포교(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육포교(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매체포교(방송 언론 출판 인터넷 등), 지역포교분야 등이며, 포교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추천대상은 종단 소속 스님 및 재가불자, 종단 소속 사찰 및 단체 등으로 5년 이상 포교활동 중인 자이며, 포교대상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오는 10월8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으로 하면 된다.

염태규 기자

社
告

원폭 피해자 2세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불교신문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원폭 피해자 2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땅 1평 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일제 강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피해가 65년이 지난 지금도 되돌림 되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 2세의 경우,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원이면 피해자들의 안식처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3.3m²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합천평화의집, 아름다운동행
- 주 관 : 합천평화의집
- 기 간 : 2010년 9월22일부터 1년간
- 목 표 액 : 2억원
- 후원방법 : 5만원 - 원폭피해 2세를 위한 땅 3.3m²(1평) 후원(심사일반 동참도 가능)
- 후원계좌 : 농협 301-0063-8703-21(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 문 의 : 합천평화의집 (055)934-0301,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신문사 (02)730-4488

다음호 10월2일자 발행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9월20일(월)~24일(금) 추석연휴 관계로 본지 9월25일(토)·29일(수)자는 쉽니다. 따라서 다음(2659)호는 10월2일(토)자로 제작, 발송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백제불교 문화의 꽃
아미타 제일도량

無量壽寺

1400년 백제문화의 수도에서 만나는 천년의 백제

백제의 고향 만수산 기슭, 소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맑은 터에 자리한 무량사는 9세기 경 발원국사가 창건한 후 무주 무열(無住)대사에 의해 중창이 이루어진 천년고찰입니다. 불교가 융성한 시절 대규모 불사를 통해 전각 30여동에 부속암자 12개 등이 존재했던 대찰로 기록은 전하고 있으며 2000년 개울 건너에서 옛 무량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와장, 주조석 등이 발굴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량사의 대표작인 전각인 극락전(보물 제363호)은 드물게 중층구조를 취하고 사찰 중앙에 자리한 오층석탑(보물 제85호)과 석등(보물 제233호)이 어우러져 흥내를 수 없는 백제불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조전 세조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사습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비관, 책을 불사르고 스님이 되어 말년에 무량사에 들어와 59세 때 입적하였는데 그의 유언대로 절 옆에 묻었다가 3년 후에 파보니 얼굴이 산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현재 화장할 때 발견된 사리를 모신 부도와 직접 그랬다는 자화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잔이 백제의 수도인 충남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2010년 9월 18일 ~ 10월 17일 한달간 진행됩니다. 백제불교문화의 향훈을 그대로 간직한 도량인 무량사에서 잃어버린 백제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주지 석 전 외 무량사 대중 합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번지
www.muryangsa.or.kr

사찰 손레 문의 ☎ 041-836-5066